

나주시, 전남광주 통합시대 중심도시 도약

에너지수도·혁신도시 완성 등 10대 전략·77개 과제 발표 미래성장 정책 공유... 경쟁력 강화·시민 체감 정책 추진

나주시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시정 비전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나주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통합시대, 나주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윤병태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비롯해 에너지산업 육성, 혁신도시 발전, 영산강 관광자원 활용,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민선 9기 분야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민선 9기 나주시정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 빛가람 혁신도시 완성, 영산강이 흐르는 정원·관광도시, 2000년 역사 위에 웅비하는 역사문화도시, 소득이 보장되고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도시, 소상공인 활력을 위한 상권 활성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어린이 행복종합타운 조성,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 미래가 있는 청년활력도시, 골고루 행복한 더 따뜻한 행복도시, 사람·산업·미래를 잇는 광역교통 중심도시 등 10대 전략과 77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완성을 민선 9기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글로벌 핵융합 연구단지 조성,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K-그리드 인제·장영밸리 조성, 차세대 전력망·전력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유치, 컨택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세계 에너지 총회 유치 등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대비한 혁신도시 발전 전략도 제시됐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을 적극 추진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청 및 의회 청사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역사·문화 전략도 한층 강화된다.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비롯해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마한고도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 구축, 나주목판아 복원 및 천년역

사공원 조성,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를 원도심 구축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9기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여건 속에서 나주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완성하고 혁신도시와 영산강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 관광,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희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서영학 여수시장이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서영학 여수시장,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민선 9기 힘찬 출발

서영학 여수시장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민 곁에서 민선9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전남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민주권 행적 실현 의지를 담은 '시장 직통 시민소통폰 운영'과 '48시간 현장점검 기동체계 구축'을 취임 후 첫 결재로 서명한 데 이어, 최대 현안인 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첫 공식 일정으로 찾았다.

이어 오후에는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공

개대를 나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시민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민선9기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보다 실천, 보여주기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현장과 소통 중심의 시정을 본격화하고, 시장구호인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시장 전반에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보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선도기관 위상 강화

부패방지 청렴추진단 회의

보성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철우 군수 주재로 '2026년 부패방지 청렴추진단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청렴 시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군은 부패방지 체계 구축, 청렴 공직문화 조성,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를 연중 추진하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5년 연속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공직부패 감찰, 청렴실천 다짐의 날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 청



보성군은 최근 김철우 군수 주재로 '2026년 부패방지 청렴추진단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청렴 시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렴 시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항목별 보완 과제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대응 전략 및 부서별 협업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책무다"며 "모든 공직자가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행정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8월부터 11월까지 청렴체감도 조사와 반부패 추진 실적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고흥우주인브루어리 거리 중기부 '유망 골목상권' 선정

고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유망골목상권)' 공모에 고흥우주인브루어리 거리(고흥읍 원동남계길 45 일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포함 총 2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획됐다.

군은 '고흥우주인브루어리 거리'를 중심으로 상권 특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우주인브루어리 거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상권 브랜드 구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상인 역량 강화, 공동마케팅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고흥의 우주항공 관광자원과 지역 먹거리,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상권 육성과 함께, 지역 대표 먹거리인 숯불생선구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특화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함평파크골프장, 이달부터 유료화 전환

군민 2000원·관외 7000원... 이용자 불편 최소화

함평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 하는 함평파크골프장이 7월부터 유료화 운영으로 전환됐다.

호남 최초 공인구장 인증을 받은 함평파크골프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군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무료로 운영 돼왔다.

이번 유료화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료 운영 시행에 따라 이용객은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용료는 함평군민 2000원, 관외 거주자는 7000원이다. 단, 관외 거주자는 이용료 결제 시 3000원

을 함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군은 유료화 전환을 계기로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양성한 함평군 문화체육과장은 "함평파크골프장이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료화 전환에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문화체육과(061-320-1802) 또는 함평파크골프장 매표소(061-322-1887)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최원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장성군이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물놀이 시설과 수경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은 흥길동 테마파크 분수시설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장성군청

장성, 물놀이·수경시설 운영 시작

항미르랜드 등 개장...17일 흥길동테마파크 오픈

장성군이 여름철을 맞아 지역 내 물놀이 시설과 수경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항미르랜드 물놀이시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청소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언제나 방문해도 된다.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시설 정비할 예정이어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

상무평화공원 음악분수 가동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 토·일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정화작업으로 인해 가동을 멈춘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은 흥길동 테마파크다. 17일부터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를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북하면 물통골 폭포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하며, 휴가철에는 평일에도 개장할 예정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다. 장성읍 주민들에게 생애한 여름을 선사하고 있는 장성공원 경관폭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7시부터 9시 매일 두 차례씩 가동한다.

황룡강 인공폭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조명 시설이 가동돼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많은 방문을 당부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66699@gwangnam.co.kr